

배포 일시	2022. 7. 1.(금)	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정채교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 장 원 (044-201-4602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경부고속선 대전~오송역 간 SRT 궤도 이탈(3보) - 고속열차 내일 오전 9시부터 완전 정상화 예상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7월 1일 15:21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 이탈 사고 관련, 고속열차 상행선이 내일 오전 9시 전후로 정상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(하행선은 첫차부터 정상운행 가능 예상).
  - 현재 사고열차가 궤도 이탈된 상태로 지나간 선로 약 200m를 복구 중이며, 사고열차 이동 등 본격적인 복구작업은 열차 운행이 모두 종료한 23시 이후\*부터 가능할 전망이다.
    - \* 현재 사고구간 전후로 고속열차가 운행 중이어서 기종기 등의 접근 불가능한 상황
  - 복구 작업은 총 10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후 시험운행을 거쳐 선로의 정상여부를 판단한 후 열차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.
- 현재(21시 30분 기준)까지 사고여파로 총 8개 고속열차(KTX 4, SRT 4)가 운휴되었으며, 총 69개 고속열차(KTX 50, SRT 19)가 20분 이상 지연(최대 3시간)되고 있다.
-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명소 제2차관이 복구현장을 지휘하고 있으며, 철도안전감독관·철도사법경찰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,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.
  - 어명소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“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하되 작업자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라”고 당부하면서, “열차지연 상황에 대한 승객안내와 부상자 등의 사후관리에도 신경 쓰고, 여름철 열차운행 취약 개소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”고 지시하였다.

